



## 당진군, 충청권 최대규모 문화예술 지원사업 펼쳐

기획편집국 [cnnews01@naver.com](mailto:cnnews01@naver.com)

당진군이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, 공연활동 및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활동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.

이는 올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'당진군 문예진흥기금' 지원계획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.

특히, 올해 군이 지원하는 규모는 총 2억2800만원 규모로 이는 그동안 충남도의 문예진흥기금을 50여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왔던 6~7000만원 수준의 진흥사업 지원금에 비해 3배가 넘는 규모이다.

또한, 현재 문예진흥기금이 운영되는 충남도내 지자체는 천안시와 당진군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천안의 경우 연 4000여만원이 예술진흥 활동에 지원되고 있어 예술진흥을 위한 당진군의 투자 노력이 각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이를 위해 군은 지난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공모 및 심사를 실시해 8개 분야 50여건을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.

군이 올해 공모하는 분야별 사업유형과 지원규모를 보면 △문학분야로 동인지 및 백일장 등 5건 각 100~500만원, △ 미술분야에 10건 100~500만원 △ 공연예술 10건 100~500만원, △ 전통예술 7건 100~500만원 △ 청소년문예활동 5건 100~500만원이다

또 △ 종합예술은 총5건으로 향토축제가 200~1000만원 규모, 일반예술제가 100~500만원이다. △ 국제예술교류 분야에서도 3건 200~1000만원이 △ 기타 예술지발간과 문예증진사업이 5건에 100~500만원 지원규모이다.

이 문예진흥사업의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이달 27일까지 군 문화체육과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군은 3월 20일까지 대상단체를 결정 통지할 계획이다.

한편 이 문예진흥기금은 지난해 6월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기금 조성에 나서 기업체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7억여원이 조성되었으며, 지속적인 기금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